

野, 경제분야 질문도 '조국 사퇴' 공세

국회 국정부질문 한국당, 경제정책 전환 요구 민주당, 정부 정책 옹호 주력

지난 30일 열린 국회 경제 분야 국정부질문에서도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이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사와 통화하며 불거진 '통화 논란' 등을 비판하며 해임을 촉구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피의사실공표와 한국당과의 '내통' 의혹을 거론하며 검찰로 화살을 돌리며 엄호에 나섰다.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하며 삭발한 한국당 이현승 의원은 "주요 국가 의제들이 편법과 특혜의 온상인 '조로남발' 조국 일가의 거대한 블랙홀에 빠져있다"고 비판하며 조 장관 해임을 요구했다. 그는 이날엔 국무총리를 향해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 중인 검사와 통화한 것은 적절한가"라고 지적한 뒤 사모펀드 등 조 장관 관련 의혹을 거론하며 "결단을 내려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할 용의가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이에 "제기된 문제는 조사 중이다. 해임 건의 문제는 진실이 가려지는 것을 조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국당 운영석 의원은 "우리 경제가 심각한 저성장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 사태'가 국정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하루속히 조 장관을 파면해 국정을 정상화하고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주의 이념으로 무장된 신분을 법무부 수장으로 내세워서 국민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며 "이런 분이 국무위원으로 내각에 있는 한 아무리 대통령과 총리가 기업을 방문한들 경제인들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겠냐"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검찰로 화살을 돌렸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검찰 수사 문제를 지적하며



민주당, 이주영 부의장 본회의 정회 항의
지난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국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원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두번째)가 지난 26일 열렸던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정회를 선언한 이주영 국회부의장(위)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행태를 보면 오직 조 장관 관련 수사에만 요란스럽게 매달려서 나라 전체가 시끄럽고 국민들도 불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윤관석 의원은 "검찰이 수사로 정치에 개입하는 행태는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하고 국회 권한을 무시하고,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일부 '정치 검찰'과 한국당은 수사 기밀에 대해 내통을 넘어 '부당거래'를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여야는 소득주도성장정책과 분량 상향제 등 경제 정책도 화제로 올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를 지적하며 정책 전환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정부 정책 옹호에 주력했다. 한국당 운영석 의원은 "문재인 정권 2년

동안 투자와 고용, 생산과 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가 하락했고 빈부격차는 최악에 일 자리가 사라졌다"며 "경제정책을 대안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이해훈 의원은 "분양 상향제 확대는 집값을 잡기는 커녕 올리기만 하고, 경제와 사람만 잡는다"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근 한국당이 경제 정책 대안이라며 내놓은 '민부론'을 역공세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최근 야당이 발표한 경제 대안 정책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747'의 재논이라거나 '줄푸세'의 재탕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국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민간주도 경제 대안인 '민부론' 사이의 원탁

회의를 제안한다면 동의하겠느냐"는 한국당 김광림 의원 질의에 "국회에서 합의해 주면 정부도 기꺼이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운영석 의원의 질의에 "전체적으로 경기의 위축,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점 때문에 전체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것은 있지만 재정 역할로 덜 악화하도록 방어하는 효과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분양 상향제의 작동 요건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면서 "아마 10월 하순경에 관련 개정이 마무리될 듯하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유승민 '비상행동' 공식 출범

바른미래 분당 가시화...안철수 정치 재개 움직임

바른미래당이 반년간의 내홍 끝에 사실상 분당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손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당내 '비당권파' 의원들이 독자 지도부를 만들고, 비당권파의 한 축인 안철수 전 의원이 정치 재개 움직임을 보이면서 바른미래당에 '분당 태풍'이 곧 상륙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손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유승민-안철수계 비당권파 의원 15명은 지난 30일 국회에서 독자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비상행동)을 공식 출범하고 유승민 의원을 대표로 추대했다. 이들의 출범 회의는 손 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원회의와 같은 시간에 바로 옆 회의실에서 열렸다. 당권파 9명보다 더 많은 수가 참여하는 대안 지도 체제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도로 풀이된다.

유 의원이 독자적인 '깃발'을 든 가운데 비당권파의 다른 한 축인 안철수 전 의원의 움직임 역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안 전 의원의 김도성 전 비서실장 은 이날 안 전 의원 지지 모임인 인터넷 카페 '미래광장'에서 "안 전 의원이 '안철수, 내가 달리기를 하며 배운 것'이란 제목의 책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1년 체류 일정으로 유럽으로 떠난 안 전 대표의 첫 국내 활동이라 당 내에서는 안 전 대표의 정계 복귀가 임박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안철수계 비당권파 의원들이 '출당'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말 역시 돌고 있다. 미래당 관계자는 "분당은 사실상 초입기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합의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진통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대안정치, 창당기획단 현판식

바른미래 호남파에 구애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는 지난 30일 국회 인근에 마련한 창당준비기획단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하고 기성 '대안신당' 창당 준비에 속도를 냈다. 아울러 분당 '초입기'에 들어간 호남파에 신당 창당을 두고 토론을 하자고 제안하며 제3세력 결집에 나섰다. 이날부터 시도당 창당을 위한 지역별 창당준비모임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승열 대표는 "대내외적 사정으로서 창당준비기획단이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었다"며 "오늘 현판식을 계기로 (창당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다짐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바꾸는 당을 만들

것을 결의한다"고 말했다. 대안정치는 4분기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일(11월 15일) 이전인 11월 초-중순 창당을 목표로 이미 창당 발기인 모집에 들어간 가운데 이날 부산을 시작으로 내달 경기, 서울, 전남, 광주 등에서 지역별 창당준비모임을 열 예정이다.

한편, 대안정치는 이날 바른미래당 내 호남파 등에 제3지대 신당 창당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하자고 제안했다. 창당준비기획단 조직위원장인 최경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안정치 국회의원-창당준비기획단 연설회에서 "민주평화당 광범파와 무소속 세력, 바른미래당 호남 세력에게 말한다"며 "대안신당을 위해 어떻게 단결하고 통합할지 토론하자"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 쟁점

광주·전남 국감 7일 시작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주요 피감기관의 국정감사는 7일부터 시작된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광주지법과 고법, 광주지검·고검, 한국전력, 전남도청 등이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피감기관들이다.

지난 30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광주지방기상청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가 7일 국회에서 열린다. 이어 8일에는 광주·지법, 광주지정법원, 광주·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대전고법과 대전고검에서 진행된다.

광주지법과 광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과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 수사 등 지역 이슈가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가 전남도청에서 전남도청과 전남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남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전남경찰청은 노인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대책마련과 농촌 치안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예상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10일과 11일 각각 국회에서 이뤄진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한국당 판소리... "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조국정국 이후"

3당 원내대표 회동...조사 시기 이견 합의 실패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30일 문화상 국회의장 주제로 회동하고 국회의원 자녀 입시 문제의 전수조사 방안을 논의했으나 조사 시기에 이견을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정실에서 여야가 공감대를 보인 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와 관련한 세부 사안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등 '조국 사태'가 마무리된 뒤 전수조사를 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며 협상에 뚜렷

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사태가 정리된 이후 (전수조사를) 하는 게 맞다"며 오 원내대표도 "국조 논의를 하고 그 이후 필요하다면 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자녀 문제를 포함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가 '조국 수사 종료 전까지 전수조사에 임할 수 없

다'고 얘기했다"며 "유야무야하려는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장기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문제도 다뤘다. 나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을 3년 동안 공석으로 놔뒀는데, 하루빨리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문 의장은 회동 모두발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정 수사권 조정은 모든 정당이 약속한 사안"이라며 "검찰개혁은 법률 제정이 핵심이다. 국회가 여야 협치를 통해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7년
77 광주일보
창사 67주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키농장

광고문의 (062) 227-9600
신문구독 (062) 220-0551
예향구독 (062) 220-0550

• 지국안내 •

| | | | |
|-----|-------------|-------------|--------------|
| 북구 | 동광 266-1920 | 문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 | 신안 222-8171 | 양산 571-7658 | 오치 266-7601 |
| | 용봉 433-1503 | 우산 433-1503 | |
| 동구 | 남광 675-5530 | 동명 222-9054 | 동부 225-6001 |
| | 중앙 222-9054 | 충정 222-8171 | |
| 남구 | 남부 652-0175 | 백운 651-1833 | 봉선 675-5530 |
| | 송하 675-6805 | 진월 671-7276 | |
| 서구 | 광천 382-5788 | 상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 | 문천 376-7153 | 치평 376-6511 | 봉암 603-0311 |
| | 화정 369-1625 | | |
| 광산구 | 운남 952-1687 | 월곡 959-1920 | 첨단 973-2900 |
| | 하남 959-1500 | 광산 944-0444 | |

농업회사법인 나주농산
농산물 저온창고 임대·보관

■ 콘크리트 신축건물
20평~23평 등 (총 400평)

배·사과·양파 등 임대보관

• 신년서비스 •
임대료 저렴하게 드림

위 치 나주시 문평면사무소 뒤
연락처 010-3993-3022

지난 20년간 13,000여명이 수강한 명강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강의
(컨설팅과 재테크)

전임강사 : 정영수 경영학박사 (부동산 전공)

- 평생교육공로 교육과학부장관상 수상
- MBC - TV 방송국 경제특강
- KBC - 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강의
- 전남대 20년 강(전대 용봉인상 수상)
- 공무원수원, 중소기업청, 한국전력 등 150여회 이상 특강

특 전

자격 취득 희망시, 공인부동산발달경영관리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관리분석사 등 자격 취득도록 책임지도하며 수료후 모임체 결성하여 평생지도하여 드림

▶ 강의일정 | 2019년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19:00~21:00
▶ 강 의 료 | 210,000원(15주) * 선착순 50명
▶ 조선대 평생교육원

전화 062) 230-7700-2(010-5613-1808)

전국임야
삽니다
당일처리. 010-6834-7400